

한국 코로나 19 초기 대응에 관한 외신 보도 프레임 탐색적 연구: 위험과 위기, 국가 신뢰의 관점에서

임유진*

(Ph.D,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수석컨설턴트)

이예원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임연구원)

〈 초 록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 19 발생 초기 시기에 한국의 방역 대응에 대한 해외 언론들의 보도 프레임 소재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한국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성을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코로나 발생 시점인 2020 년 1 월부터 4 월까지 주요 외신 매체 20 여개의 보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외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응·대처프레임에 초점을 맞추어 총 119 건의 기사들의 프레임 소재 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외신 보도 프레임 소재 유형은 한국의 우월한 첨단 의료 기술 시스템, 현 정부의 투명한 소통 방식과 리더십, 선제적 대응과 정책 지원, 한국 국민들의 국민성, 기타 사회 공공 인프라 등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한국 정부 방역 대응, 외신 보도, 프레임

* 교신저자, yjlim@kpr.co.kr

1. 서론

역사상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를 가져온 코로나 19 관련 한국의 방역 대응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 외교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인 빌게이츠는 2015 년 테드 강연에서 오늘날 세계적 재앙의 최대 위험은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이며 인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Bill Gates, 2015). 국제 사회가 공유하게 된 현대 사회의 위험은 필수 불가결하며, 지식의 발달과 비자발적인 위험의 증가로 이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은 한층 증가하게 되었다 (Leiss and Chociolko, 1994; 김영욱, 2008).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본 연구는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을 가져온 코로나 19 에 대한 한국의 방역 대응이 어떻게 해외 언론들의 긍정적인 보도를 이끌어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공공외교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방향성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현대 사회의 위험과 위기: 국가 신뢰의 중요성

2020 년 2 월 한국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신종 코로나 뉴스를 접할 때 떠오르는 감정으로 불안 (60.4%), 공포 (16.7), 충격 (10.9%) 등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참사 가능성 (3.94), 공포 두려움 (3.92), 과거 유사 감염 사례 전력 (3.87) 등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파이낸셜 뉴스, 2020.2.7). 이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위험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공포 인식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이다.

위험이 현상 자체에 강조를 둔 개념이라면, 위기는 조직과 공중 관계를 위한 조직의 대응 행위에 강조를 둔 개념이다 (김영욱, 2008). 따라서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공적인 위기 관리라 볼 수 있다. 한편, 위기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는데, 콤즈 (Coombs, 1999)는 기존 유형 분류들을 통합하여 위기를 아홉 가지 유형으로 재정리하였다.

<표 1> 위기의 유형

Natural Disasters	Malevolence	Technical Breakdown
Human Breakdown	Challenge	Mega damage
Organizational misdeeds	Workplace violence	Rumors

(Coombs, 1999)

기든스 (Giddens, 1990)는 위험과 불안이 신뢰의 문제와 관련되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위험 인식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는 위험이 사회적으로 재구성된 주관적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Slovic, 1984). 김영옥 (2008)은 위험과 위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 가운데 사회신뢰도 접근 (Social trust approach)에 주목하였는데, 이 접근은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사회 신뢰 요소의 중요성에 강조를 둔다. 위험과 위기 사안에서 신뢰의 중요성과 그렇게 형성된 신뢰가 위기나 조직에 대한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Lundgren and McMakin, 2004). 이렇게 볼 때, 감염병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 역시 신뢰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며, 감염병 대응에 대한 국가의 위기 관리도 신뢰와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즉, 위험과 위기 커뮤니케이션에서 결국 중요한 요소는 주체에 대한 신뢰이다 (김영옥, 2008). 국가의 신뢰에 대한 개념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기대, 행위와 관련된 감수성과 정치적 태도로서 능력과 선의에 대한 믿음으로 설명되어져 왔다 (오경민, 박홍식, 2002). 일반적으로 정부 신뢰 개념은 두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업무 수행 역할에 대한 역량, 정보, 자원의 규모, 효율성 등 능력적 요소 (Trust in the ability of the object to perform effectively)와 깨끗하고 정직한가에 대한 도덕적 요소 (Trust in the intentions of an object)에 관한 것이다. 르위스와 웨이거트 (Lewis and Weigert, 1985), 메이어 (Mayer et al, 1995) 등도 신뢰 차원이 대상의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 (Ability)과 선의와 정직성 (Integrity)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위험, 위기 상황에서 신뢰의 증가는 협력적 의사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Rousseau et al., 1998). 사회 자본으로서 신뢰 개념을 강조했던 푸트남 (Putnam, 1994)도 신뢰가 자발적 협력 행위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크리스틴 (Christen, 2004)도 상대방에 대한 인식된 신뢰 수준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의지 (Willingness to negotiate)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른 연구들도 신뢰가 협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지적하였다 (박종민, 김왕식, 2006).

한편,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처럼 현대 사회의 위험은 그 발생의 범위와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속성을 가진다 (김영옥, 2008). 따라서 세계적인 위험과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국가들을 상대로 한 신뢰 구축과 커뮤니케이션은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집행과 더불어 자국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결국, 위험. 위기 관리를 위한 공공 외교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국가 신뢰를 형성하고 신뢰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최우선 순위가 될 수 밖에 없다.

2) 신뢰 형성을 위한 미디어 프레이밍의 역할

위기 상황에서 미디어는 중간 매개체로서 특정 이슈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박은혜, 김영욱 2007). 즉, 수용자들의 특정 사건에 대한 위험 인식은 뉴스 보도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 (Singer and Endreny, 1993). 하지만 위험. 위기 상황에서 미디어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특정 프레임을 통해 재구성한다 (송해룡, 이윤경, 2013). 위기 상황에서 미디어의 프레이밍은 실질적인 네러티브를 만드는 과정이며, 때문에 위기시 대응 프레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Heath, 2004).

프레이밍(Framing)이란 ‘미디어가 현실의 어떤 특정 양상을 선택하고 그것을 보다 현저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Entman, 1993). 기틀린은 프레임을 선택, 강조, 배제를 통한 인식과 해석의 패턴으로 설명하였다 (Gitlin, 1980). 즉, 미디어는 위험. 위기 상황에서 수용자들에게 어떤 특정 양상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 프레임을 제시할 수 있다. 프레임 유형은 대략 개인이나 집단에 초점을 맞춘 일화 프레임과 배경이나 맥락에 관련된 주제 프레임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Iyengar, 1991). 아이엔거는 미디어 프레임 유형이 수용자들이 이슈의 책임을 어디로 귀인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Iyengar, 1991).

위기 상황에서 미디어 프레이밍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프레임을 유형화하였다. 2015년 메르스 감염병 위기시 미디어의 프레이밍에 대해 연구한 양과 리 (Yang and Lee, 2020)는 온라인 뉴스 미디어 보도 분석을 통해 메르스 보도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142개 기사들을 대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미디어 프레임을 살펴보고, 위기 단계에 따라 미디어 프레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은 7개 유형의 대응 프레임 변인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다시 두개의 미디어 프레임 즉, 위험 경보 (risk alarming) 프레임과 위험 경감 (risk mitigating) 프레임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들은 위험 경보 프레임 중에서도 불안 (anxiety) 세부 프레임 소재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적인 정보 제공의 중요성 및

정치 리더십과 미디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른 유형의 위기로서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위기와 관련해 미디어 프레임링을 다룬 베이샤와 할라한(Baysha and Hallahan, 2004)은 우크라이나 뉴스미디어가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 국가 정치 위기를 어떻게 프레임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829개 뉴스 기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체 유형에 따라 프레임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즉 명백한 프레임과 명백하지 않은 프레임 등 매체에 따라 프레임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적 위기 상황에서 미디어 프레임링을 연구한 송해룡과 이윤경 (2013)은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한 위기 상황에서 언론 보도의 프레임링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뉴스 프레임을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 매체의 유형에 따라 프레임 유형에도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특히 그들은 뉴스 프레임의 형식적 측면을 특정 사건과 사안의 현황에 초점을 맞춘 일화 중심 프레임과 사건의 원인과 배경, 해석을 제시하는 주제 중심 프레임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내용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세멧코와 발켄버그 (Semetko and Vlikenburg, 2000)의 연구에서 제시된 갈등, 인간 흥미, 경제, 도덕, 책임 프레임과 위험, 불안 공포, 대응, 대처 프레임을 혼합하여 총 일곱 개의 프레임으로 재유형화하였다. 그들은 연구 결과 프레임 형식 측면과 관련하여 일화 중심 프레임이 빈번하게 나타났음을 밝혀내었으며, 이는 위험 위기 상황에서 언론들이 심층적 보도보다는 단순한 사건 사고 소식 전달에 초점을 둔 것이라 설명하였다. 내용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모든 매체 유형에서 대응, 대처 프레임이 가장 많이 나타났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이들은 뉴스 정보원도 분석하였는데, 중앙 정부 관련 정보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활용은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사건 사고 위기 상황에서 미디어가 다양한 유형의 프레임링을 통해 다른 각도로 위기를 보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디어 프레임링은 수용자들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위기 상황에서 미디어의 프레임링이 어떻게 국가 신뢰와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아왔다. 이에 본 연구는 위험과 위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 가운데 사회신뢰도 접근 (Social trust approach) 관점에서, 위기 상황에서 미디어에 보도된 다양한 프레임 소재 유형들이 어떻게 국가 신뢰 형성과 관련되는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3. 연구문제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에 근거해 본 연구는 금번 세계적인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요인들을 외신 보도의 프레임 소재 탐색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외신 보도의 프레임 소재들이 국가 신뢰 형성과 어떻게 관련성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대응·대처 커뮤니케이션 프레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외신 보도에 나타난 한국의 코로나 19 위기 대응·대처 프레임의 형식적, 내용적 소재 유형의 특징은 어떠한지,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대처 프레임에 관한 외신 보도 전반을 탐색해보고 국가 신뢰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 외신 보도에 주로 나타난 대응·대처 프레임의 형식적 특징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 외신 보도에 주로 나타난 대응·대처 프레임 소재의 내용적 특징은 어떠한가? 외신 보도에 나타난 대응·대처 프레임 주요 소재들은 국가 신뢰와 관련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 발생 시점인 2020년 1월20일부터 4월30일까지 분석 대상 기간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매체로는 ABC, BBC, CNN, NBC 등 주요 방송사, Bloomberg, Reuter, UPI 등 주요 통신사,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Economist, Newsweek, Time, The Guardian, LA Times, The Diplomat 등 주요 일간지 및 주간지,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등 전문지, 아리랑TV, 코리아헤럴드 등 국내 영자 매체를 포함해 총 20개 매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보도 기사 수집을 위해 본 연구는 먼저 해당 기간 동안 외신 보도에 대한 국내 기사 및 유튜브 영상 등 2차 자료를 통해 먼저 기본적인 프레임 소재 유형 분석 프레임을 파악하였다. 이후 실제 외신과 국내 보도 기사들을 수집 분석하여 핵심적인 세부 프레임 유형을 탐색, 분류하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의 혼합 방식을 사용하였다 (Semetko and Valkenburg, 2000). 구글 뉴스 검색을 통해 보도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기사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키워드는 ‘Korea Coronavirus Response, site: 언론사별 홈페이지 주소’로 검색 범위를 제한하고, 영어권 매체의 기사들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외신 기사 보도 수집에 있어서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된 대응·대처 관련 기사들을 대상으로 수집, 분석하였으며, 근거가 드러나지 않은 기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응·대처 프레임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기존 연구들이 위기 상황에서 대응 프레임이 가장 중요한 유형이며 (송해룡, 이윤경, 2013), 외신에서 강조하는 대응·대처 프레임을 소재별로 자세히 탐색함으로써 향후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다. 총 수집된 272건의 기사 가운데 대응·대처 프레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대응·대처 프레임 관련 근거 소재가 없는 기사들 153건을 제외하고 총 119건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항목으로는 보도 기사 프레임의 형식적 측면으로서 뉴스 유형, 뉴스의 전반적 논조, 정보원 등을 분석하였다. 형식적 측면으로 뉴스 형식을 스트레이트, 해설, 인터뷰 등으로 유형화하였고, 뉴스 논조는 긍정, 중립, 부정으로 구분하였으며, 긍정과 부정 논조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 혼합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정보원 분석을 통해 주요 정보원들을 유형화하였다. 내용적 측면으로서 대응·대처 프레임 세부 소재를 분석하였다. 대응·대처 프레임 세부 소재는 한 기사에서 두개 이상의 소재를 포함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주요 프레임 세부 소재를 중심으로 중복하여 카운트 하였으며, 월별 추이에 따라 차이를 살펴 보았다. 분석 결과의 제시는 분석 항목에 따른 의미 도출에 집중하기 위해서 매체 유형별로 방송사, 신문사, 외신과 국내 영자 매체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 합계만 제시하였다.

코딩은 잘 훈련된 대학원생 한명이 전체 코딩을 실시하였으며, 코더간 신뢰도 검증을 위해 전체 샘플의 10%를 대상으로 연구자와 코더간 사전 분석을 실시하였다. 코더간 신뢰도는 Cohen's kappa 0.80 수준으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5. 연구 결과

연구문제1과 관련해 국내 코로나 19 대응·대처 프레임 소재가 나타난 주요 외신 보도들의 형식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뉴스 유형

<표 2> 뉴스 유형

	뉴스 유형					합계
	스트레이트	사설	해설·분석	인터뷰	리포·스케치	
전체	53 (44.5%)	8 (6.7%)	54 (45.3%)	2 (1.6%)	2 (1.6%)	119 (100%)

2) 뉴스 논조

<표 3> 뉴스 논조

	뉴스 논조				합계
	긍정	중립	부정	혼합	
전체	50 (42.0%)	46 (38.6%)	13 (10.9%)	10 (8.4%)	119 (100%)

3) 뉴스 정보원 (중복 체크)

<표 4> 뉴스 정보원

	정보원							정보원 없음
	대통령	국무 총리	복지부	질병관리 본부	기타정부 관계자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의료계, 학계)	
전체	13 (59%)	12 (54.5%)	9 (40.9%)	19 (86.3%)	9 (40.9%)	6 (27.2%)	11 (0.5%)	22 (100%)

4) 주요 뉴스 프레임 소재 (중복 체크)

<표 5> 주요 뉴스 프레임 소재

	대응·대처 프레임 소재			
	첨단의료 기술시스템	정부정책	국민성	사회적 인프라
1월	1 (1.7%)	-	-	-
2월	5 (8.6%)	12 (26.0%)	1 (8.3%)	-
3월	30 (51.7%)	20 (43.4%)	9 (75.0%)	2 (28.5%)
4월	22 (37.9%)	14 (30.4%)	2 (16.6%)	5 (71.4%)
전체	58 (100%)	46 (100%)	12 (100%)	7 (100%)

연구문제 2와 관련해 코로나 발생 직후부터 4월30일까지 주요 외신 보도에 나타난 국내 코로나 19 대응·대처 프레임 소재들을 살펴본 결과, 크게 첨단 의료 기술 관련 프레임, 정부 정책 프레임, 국민성 프레임, 기타 사회 인프라 프레임 등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이 네가지 유형의 프레임 소재는 한 보도 기사에서 두가지 이상 혼합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나타났기 때문에 개별 세부 소재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 관련 프레임 소재들로서, 모니터링, 해외 입국자 관리, 의심환자 추적 등 광범위한 테스트와 신속 정확한 추적 진단,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데이터 기반 트래킹 앱, 드라이브스루 등 최첨단 의료 기술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소재들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의료 시스템 선별 진료소 등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소재들도 나타났다. 한편, 신속 정확한 첨단 의료 기술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보도와 함께 개인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등 혼합적 논조가 몇몇 매체에서 함께 나타났다.

둘째, 정부 정책에 관한 프레임 소재들로서,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적 방식,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정확한 소통 등 투명한 소통에 관한 소재, 정부 주도의 민관 협동 등 정부 리더십, 진단 키트 개발을 위한 신속한 정책 대응, 규제 승인, 테스트 키트 생산 등 정부의 선제적 대응, 자가 격리,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등교 연기, 생활 자금 지원 등 정부의 정책 지원에 초점을 맞춘 프레임 소재, 정부의 엄격한 검역, 투표 방역 지침, 위기 정보 단계 상향, 국경 통제 강화 등 정부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춘 프레임 소재 등이 나타났다. 한편, 외신 매체 가운데 긍정과 부정의 혼합 논조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 정부 주도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면서도 권위주의 전체주의 역사적 배경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셋째, 국민성에 관한 프레임 소재들로서, 시민 협력, 시민 의식, 민간 개발자 등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에 관한 소재와 빠른 일처리를 선호하는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 등에 초점을 맞춘 소재들이 나타났다.

넷째, 기타 사회적 인프라에 관한 프레임 소재들로서, 공공장소 소독, 생활 방역, 소독 방역, 간호 인력, 공공 인프라 등이 언급되었다.

<표 6> 외신 보도에 나타난 한국 코로나 19 대응·대처 프레임 소재 유형

주요 프레임 소재	세부 소재	기사에서 사용된 구체적 예시
첨단 의료 기술 시스템	광범위한 테스트	의심 환자 추적, 예방 검역 선별 조치 강화,
	신속 정확한 추적 진단	해외 입국자 관리, 모니터링, 신속한 검사,
	드라이브 스루	데이터 기반 시스템, 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
	데이터기반시스템	개선
	의료 시스템	선별 진료소, 의료 시스템, 병상 대기, 약물치료법 권고안 발표, 치료
정부 정책	사생활침해	개인 정보, 사생활 침해
	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민 자유 및 언론 자유의 보장
	소통의 투명성	투명한 정보 공개, 정확한 소통
	정부 리더십과 선제적 대응	정부의 리더십, 정부 주도의 민관 협동 정부의 선제적 대응, 진단 키트 개발을 위한 신속한 정책 대응, 규제 승인, 테스트 키트 생산
	정책 지원	자가 격리,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등교 연기, 생활 자금 지원
	정부 권한 행사 강화	엄격한 검역, 투표 방역 지침 마련, 위기 정보 단계 상향, 국경 통제 강화
	권위적인 정부	권위주의
국민성	성숙한 시민의식	시민 협력, 시민 의식, 민간 개발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태도
	빨리빨리 유전자	한국인의 특성 빨리빨리
기타 사회 인프라	사회 공공 인프라	공공장소 소독, 생활 방역, 소독 방역, 간호 인력, 공공 인프라 등

(임유진, 2020.7. 한국공공외교학회 창립학술대회)

5) 주요 프레임 소재 유형

(1) 첨단 의료 기술 시스템

첨단 의료 기술 시스템 프레임 소재는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대처 프레임과 관련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추적과 진단 테스트 기술, 우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춘 유형이다. 일부 외신은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면서도 사생활 침해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함께 제시하기도 하는 등 혼합적 논조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첫째, 광범위하고 신속한 검사와 진단 테스트 시스템에 관한 프레임 소재이다. 기술 기반 추적 시스템과 단기간내 많은 사람들의 검사 실시, 신속한 진단 등 속도와 정확성, 광범위한 사람들 검사 등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룬다.

[TIME] South Korea's Health Minister on How His Country Is Beating Coronavirus Without a Lockdown (April 30, 2020) (한국이 봉쇄없이 코로나를 물리치는 방법)

But thanks to early preparations, and a robust public health response based around extensive testing and tech-powered contact tracing, the nation's tally of infections has been kept to just 10,765, about half directly related to Shincheonji. (빠른 준비와 광범위한 테스트 및 기술 기반 접촉 추적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공중 보건 대응 덕분에 전국의 감염 수는 신천지와 직접 관련된 인원의 절반인 10,765 명으로 유지되었다)

[The Washington Post] South Korea is doing 10,000 coronavirus tests a day. The U.S. is struggling for even a small fraction of that (March 14, 2020) (한국, 하루 10,000 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실시)

South Korea's testing blitz has emerged as one of the models for rapid and comprehensive responses as some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lag well behind. (한국의 코로나검사 공세는 신속하고 포괄적인 대응 모범사례의 하나로 부상했다)

[The Economist] South Korea keeps covid-19 at bay without a total lockdown (March 30, 2020) (한국, 코로나 19 완전 봉쇄없이 막아낸다)

Overall, the country has tested nearly 400,000 people for the virus in less than two months, one of the highest rates of testing in the world. (한국은 2 개월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약 400,000 명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는 세계 최고 검사율 중 하나이다)

[Arirang TV] Why are other countries attempting to buy S. Korea's COVID-19 test kits? (April 6, 2020) (왜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Covid-19 테스트 키트를 구매하려 하는가)

Over the past few months, South Korea's diagnostic kits have proven their speed and accuracy through hundreds of thousands of samplings.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의 진단 키트는 수십만 번의 샘플링을 통해 속도와 정확성을 입증했다)

[The New York Times] How South Korea Flattened the Curve (March 23, 2020) (한국이 코로나를 잠재운 방법)

The process takes about 10 minutes. Test results are usually back within hours.

(이 프로세스는 약 10분 정도 걸리며, 테스트 결과는 몇시간 내에 제공된다)

[CNN] S. Korea using digital contact tracing to curb virus spread (April 19, 2020) (한국, 디지털 접촉자 추적으로 바이러스 확산 억제)

South Korea has been using digital technology to track people who have the infection. Paula Hancocks explains how it works. Time is critical to trace where they have been and who they've seen. South Korea says it can access that information in as little as 10 minutes. (한국은 감염자 추적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추적한 정보에 10 분 안에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첨단 기술력을 강조하면서도 특히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에 초점을 둔 유형이다. 보건당국이 드라이브 스루 센터와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Foreign Affairs] South Korea Offers a Lesson in Best Practices (April 10, 2020) (한국의 코로나 19 방역 대응 모범 사례 제시)

Much attention has already been given to South Korea's use of high-tech apps and CCTV to geolocate and tag sick people.....About one month after South Korea's first positive case, for example, health officials came up with the idea of a drive-through testing facility. (한국이 코로나 검사를 위해 첨단 앱과 CCTV 를 사용하여 아픈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했다는데 많은 관심이 몰렸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은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 시설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The Guardian] South Korea took rapid, intrusive measures against Covid-19 – and they worked (March 20, 2020) (한국, 코로나 19에 대한 신속한 조치)

South Korea immediately began testing hundreds of thousands of asymptomatic people, including at drive-through centres. employed a central tracking app, Corona 100m, that publicly informs citizens of known cases within 100 metres of where they are.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 센터를 포함해 수십만 명의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즉시 시작했다)

셋째, 첨단 기술과 함께 한국의 의료 시설과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유형이다. 환자 치료 시설과 재발 환자 대응 시스템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The Korea Herald] S. Korea hosts online seminar for ASEAN officials on coronavirus responses (April 23, 2020) (한국, 아시아 관계자들을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온라인 세미나 개최)

The participants showed interest in South Korea's treatment facilities for patients with light symptoms and infection control system, including the response system for relapsed patients, the ministry said. (참가자들은 한국의 환자 치료 시설과 재발 환자 대응 시스템 등 감염 관리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

넷째, 한국의 의료 기술 시스템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면서도 개인 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함께 제시한 혼합형 논조의 유형이다. 센서의 사용이 개인정보나 시민 자유 위협과 관련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Forbes] How Smart Cities Are Protecting Against Coronavirus But Threatening Privacy (April 13, 2020) (스마트시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 하지만 프라이버시는 위협)

But on the other hand, the use of masses of connected sensors makes it clear that the coronavirus pandemic is—intentionally or not—being used as a testbed for new surveillance technologies that may threaten privacy and civil liberties. (대규모 연결 센서의 사용은 코로나 대유행이 개인 정보 보호 및 시민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감시 기술의 시험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BBC] Coronavirus privacy: Are South Korea's alerts too revealing? (March 5, 2020)

(코로나 바이러스 개인정보보호) As South Korea battles a snowballing number of Covid-19 cases, the government is letting people know if they were in the vicinity of a patient. But the volume of information has led to some awkward moments and now there is as much fear of social stigma as of illness, as Hyung Eun Kim of BBC News Korean reports. (하지만, 지금은 질병만큼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다섯째, 기타 유형으로서 추적 진단 기술력이나 검사 범위를 언급하는데 있어서 국가간 비교를 시도한 유형이다. 한국의 진단 기술과 홍콩 등 기타 국가들의 진단 기술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The Economist] Countries are using apps and data networks to keep tabs on the pandemic (March 26, 2020) (앱과 데이터 네트워크를 사용한 감염병 대응)

While Hong Kong uses WhatsApp, South Korea has a customized app that sounds an alarm and alerts officials if people stray; as of March 21st 42% of the 10,600 people under quarantine there were using the app. (홍콩이 왓츠앱을 사용하는 동안, 한국은 경보음을 울리는 맞춤형 앱을 제공한다)

(2) 현 정부의 정책

현 정부의 정책 프레임 소재 유형은 민주주의, 정부의 리더십, 진단 키트 준비 등 선제적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등교 연기, 생활 자금 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엄격한 검역, 위기 경보 단계 상향, 투표 방역 지침 마련 등 정부의 정책 권한 행사에 대한 내용이다. 소수이지만 한국 과거 정부의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역사에 대해 언급한 기사도 나타났다.

첫째,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에 기반해 움직이고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한 외신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감염병 관리 성공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The New York Times] How Democracy Won the World's First Coronavirus Election (April 16, 2020)
(어떻게 민주주의가 세계 최초 코로나 바이러스 선거에서 승리했는가)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this country's legislative elections this week is the fact that they happened at all. They were the world's first nationwide vote of the coronavirus era, and more than 29 million people — 66 percent of the electorate, the highest turnout in nearly three decades — cast ballots to choose 300 new members for the National Assembly.....South Korea is again a beacon in dark times, a model for how an open society can weather the storm of a pandemic. (이번 선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세계 최초의 전국적 투표였으며, 2900 만 명 (유권자의 66 %, 약 30 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 이상이 300 명의 새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투표했다)

[The Washington Post] South Korea shows that democracies can succeed against the coronavirus (March 11, 2020) (한국, 민주주의가 코로나에 맞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다)

In reality, it turns out that democracies are better suited to protect public health — at least, when they take advantage of their inherent strengths. One country is showing how it's done: South Korea. South Korea's civil society has voluntarily pitched in. Major events have been canceled, church services have been moved online and the government has managed to persuade citizens to stay away from Daegu — where the majority of cases are — without turning the entire city into a prison. (민주주의에 내재된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민주주의는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적합함이 확인됐다. 한국 시민 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이를 잘 보여준다)

둘째, 현 정부의 투명한 소통 방식에 초점을 둔 프레임 소재 유형이다. 투명한 소통과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자유로운 언론에 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정보 전달의 개방성과 투명성, 정확성이 국민들의 신뢰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제시되고 있다.

[TIME] How South Korea's Coronavirus Outbreak Got so Quickly out of Control (Feb. 24, 2020)
(어떻게 한국이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빠르게 벗어났는가)

A major reason for the rapid surge in confirmed coronavirus cases is **the relative openness and transparency of South Korean society**. "The number of cases in South Korea seems high at least in part because the country has high diagnostic capability, a free press and a democratically accountable system.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원인은 한국 사회의 상대적 개방성과 투명성에 기인한다)

[The Diplomat] South Korea's Experiment in Pandemic Surveillance (April 13, 2020)
(한국의 대유행 감시 실험)

It also opened channels for patients to directly petition for a review of their logs, allowing for corrections on a case-by-case basis. **The transparency with which the government has adapted its surveillance practices inspired public trust in an endeavor that would otherwise have aroused suspicion.** (정부의 투명성은 대중들의 신뢰를 불러일으켰다)

[Foreign Policy] The Secret to Coronavirus Success Is Trust (April 15, 2020)
(코로나 바이러스 성공 비결은 신뢰)

High levels of trust seem to be a common feature of countries with the most effective coronavirus responses, measured by slow spread and low mortality. In South Korea, the government "says **the public is more likely to trust it if it releases transparent and accurate information,**" Nature reports. More succinctly: Government competence breeds trust.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된다면 공중들은 더욱 신뢰하게 된다)

셋째, 현 정부의 리더십과 선제적인 정책 대응에 관한 내용이다. 정부의 유능한 리더십에 초점을 맞출 뿐 아니라, 첨단 시스템 운영이나 정책 집행이 정부의 주도적인 리더십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비상 시스템을 가동시켰을 뿐 아니라, 교육과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제1권 1호 (2021. 3)

테스팅 시스템을 승인하는 등 신속하고 선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Foreign Affairs] South Korea Offers a Lesson in Best Practices (April 10, 2020)
(한국이 모범 사례를 제시하다)

To avoid repeating those err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reated emergency response systems, trained for the next pandemic, and passed a law providing for the immediate approval of testing systems in the event of a health crisis. Another simple but pragmatic idea was the "designated site"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assigned some medical facilities to handle COVID-19 cases exclusively and others to handle other ailments. (한국 정부는 비상 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향후 대유행을 대비하는 훈련을 했으며, 보건 위기상황 시 검사 체계를 즉시 승인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The Economist] South Korea keeps covid-19 at bay without a total lockdown (March 30, 2020)
(한국, 원천 봉쇄없이 코로나를 막아내다)

The country's disease-control authority approved the first test kit for the virus in early February, less than a week after the application was filed. By the time the number of cases began to rise a couple of weeks later, it had the capacity to test thousands of people a day and get results within a few hours from a network of labs across the country. (국가 질병 통제 당국은 첫번째 바이러스 검사 키트 승인 신청이 이루어진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은 2 월 초 검사 키트를 승인했다)

[CNN] How this South Korean company created coronavirus test kits in three weeks (March 12, 2020) (어떻게 한국 기업은 3 주만에 코로나 테스트 키트를 만들었는가)

Before there were any cases of novel coronavirus confirmed in South Korea, one of the country's biotech firms had begun preparing to make testing kits to identify the disease....."Even if nobody is asking us to, we are a molecular diagnosis company. We have to prepare in advance," he remembered thinking at the time.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보고되기 전 국내 바이오 기술 기업이 테스트 키트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넷째,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서 사회적 거리 두기, 학교의 개학 연기, 생활 자금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다.

[NewsWeek] As Coronavirus Spreads Across Globe, Here's How Iran, Italy, U.S. and South Korea Are Responding (March 6, 2020)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 및 주요국들의 대응)
With 5,766 cases and 35 deaths, South Korea postponed the start of the new school semester from

March 2 until March 22 and Italy..... (한국 확진자 5,766명, 사망자 35명 발생으로 새 학기 개강 3월 2일에서 3월 22일로 연기)

다섯째, 정부의 권한 행사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엄격한 검역, 투표 방역 지침 마련, 위기 경보 단계 상향, 국경 통제 강화 등 프레임 내용 소재 유형들이 나타났다.

[ABC] South Korea ups emergency response as viral cases surge (Feb. 21, 2020)
(한국, 바이러스 급증으로 긴급 대응 강화)

South Korea's government banned major rallies in its capital and declared a health emergency in its fourth largest city as 100 new virus cases were reported Friday, bringing the country's total to 204.
(한국 정부는 지난 금요일 100건의 신종 바이러스 사례가 보고되면서, 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고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ABC] Coronavirus deaths in China top 2,500 as South Korea raises alert level to 'highest' (Feb. 23, 2020)
(한국의 경계 수준 상향과 중국 사망자 2,500명 돌파)

South Korea raised the alert level for the novel coronavirus Sunday as confirmed cases continue to rise at an alarming rate. (한국은 확진자 케이스가 급증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 수준을 높였다)

기타 소수이지만 과거 정부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배경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기도 했다.

[The Economist] South Korea is going through deep social, economic change (April 11, 2020)
(한국은 지금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겪는 중)

On the face of it these two episodes tell two very different stories about the country. The remarkable response to the virus looks like a lesson in the benefits of the old Korea - a strong, bossy state combined with individual willingness to compromise and show self-discipline for the benefit of society as a whole.
(한국의 바이러스 대응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려는 개인의 의지와 결합된 강력한 과거 한국의 혜택에 대한 교훈처럼 보인다)

(3) 한국인들의 국민성

국민성 프레임 소재 유형은 한국 국민들의 국민성 측면을 강조한 보도로 높은 시민 의식이나 이타 정신, 빠른 일처리를 선호하는 유전자 등 내용이 주를 이룬다.

첫째, 한국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다. 최근에는 총선과 관련하여 코로나 19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선거가 잘 치뤄졌다는 내용이 많이 나타났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국민성에 초점을 맞춘 내용도 나타났다.

[The New York Times] How South Korea Flattened the Curve (March 23, 2020)

(한국이 코로나를 잠재운 방법)

“This public trust has resulted in a very high level of civic awareness and voluntary cooperation that strengthens our collective effort,” Lee Tae-ho, the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old reporters earlier this month. (대중들의 신뢰는 우리의 공동 노력을 강화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시민 의식과 자발적 협력으로 이어졌다)

[BBC] Coronavirus: South Korea holds elections in masks and clinics (April 15, 2020)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 마스크 및 진료소 함께한 선거)

“Everyone recognised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and showed mature citizenship by encouraging electoral officials rather than complaining,” the mayor of Seoul's Yongsan district, Sung Jang-hyun, told the BBC. (모든 사람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평보다는 선거 관리들을 격려함으로써 성숙한 시민권을 보여주었다)

또한 시민정신의 일환으로서 한국 국민들의 이타정신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국민성에 초점을 맞춘 프레임 소재 유형도 나타났다. 예로서 마스크 착용이 자신보다 타인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도 제시되고 있다.

[The Diplomat] Lessons From South Korea's COVID-19 Outbreak: The Good, Bad, and Ugly (March 10, 2020) (한국의 코로나 19 발생으로부터의 교훈)

Koreans, quite fortunately, tend to be very socially conscious, willing to go out of their way to reduce risks for others. From the perspective of virus containment, this is an incredible gift. In fact, most Koreans will readily admit they wear masks, not only to protect themselves, but also to help protect others. (한국인은 타인에 대한 위험을 감소하고자 하는 사회적 의식이 투철하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자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것이다)

[UPI] Coronavirus: South Korea has more recovered patients than sick (March 28, 2020)
(코로나바이러스: 한국, 회복된 환자 수 증가)

"We believe this to be the result of selfless efforts made by the public, who worked to maintain disinfectant process while actively participating in social distancing," said KCDC Deputy Director Kwon Joon Wook during a regular briefing. (사회적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면서 방역 유지에 힘쓴 대중의 이타적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둘째, 빠른 일처리를 선호하는 한국인들의 국민성에 관한 내용이다. 한국인들에게 빨리 빨리 유전자 ("bali bali" gene)가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코로나 진단 테스트 설계부터 전국 네트워크 구축이 17일만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BBC] Coronavirus in South Korea: How 'trace, test and treat' may be saving lives (March 12, 2020)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추적, 테스트와 치료)

Professor Gye Cheol Kwon, the chairman of the Laboratory Medicine Foundation, calls this the Korean "bali bali" gene. Bali means quick in Korean. He says this because the South Koreans managed to design and create a test, set up a network of labs across the country and get it all to work in 17 days. (한국의 빨리빨리 유전자는 한국어로 빠른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들은 코로나 진단 테스트 설계, 전국 네트워크 구축 등을 17일만에 수행했다)

(4) 기타 사회적 인프라

기타 사회적 인프라 프레임 소재는 공공장소 소독, 생활 방역, 소독 방역, 간호 인력, 공공 인프라 등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다양한 세부 소재 내용 가운데 간호 인력들의 헌신에 초점을 맞춘 프레임 소재 유형이 다루어졌다.

[UPI] Nurses 'drive everything' in South Korea's response to COVID-19 (April 13, 2020)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 공신, 간호사)

While South Korea has found success in combating the spread of COVID-19 through an aggressive approach of testing and contact tracing, there has been another crucial factor driving the country's response to the deadly disease: its nurses, who have carried some of the heaviest burdens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 here. (공격적인 검사와 접촉자 추적 방식이 한국이 코로나 19 확산을 성공적으로 저지하는데 기인했다면, 한국의 간호사들은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대응을 이끈 중요한 요소이다)

지하철 같은 공공 장소 소독 방역과 관련한 프레임 소재 유형도 나타났다.

[BBC] Coronavirus and South Korea: How lives changed to beat the virus (April 30, 2020) (코로나 바이러스와 한국)

The country's also managed to keep its public transportation relatively virus free. Subway stations have been meticulously cleaned and wiped down with disinfection sprays so commuters can breathe easy. (통근자들이 쉽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한국 지하철 역은 꼼꼼하게 소독된다)

6.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세계적인 위험. 위기 상황에서 국가 신뢰의 역할에 주목하고, 외신 보도에 나타난 프레임 탐색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이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외신 보도에 나타난 한국의 위기 대응·대처 프레임 소재 뉴스 기사들의 형식적 측면을 살펴보고, 특히 뉴스 기사에 나타난 프레임 세부 소재 유형들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기 대응·대처 프레임이 나타난 기사들에 국한시켜 살펴보았다. 한 기사에 두가지 이상의 소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거나, 한 기사에 긍정 논조와 부정 논조가 혼합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나타나 기사가 아닌 각 프레임 소재별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외신 보도의 긍정적 프레임 변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요소는 한국의 코로나 19 관련 데이터의 안정화 패턴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도시 봉쇄 (Lockdown)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 커브의 하락 패턴을 보이면서,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과 관련해 외신 뉴스 보도의 형식적 특성을 살펴볼 때, 긍정 및 중립 논조의 비율이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주요 외신들의 긍정적인 보도들은 지속적인 국내 보도자료 배포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외교부, 해외문화홍보원 등 정부 주요 관련 부처들의 프레임 소재 앵글 발굴과 키 메시지의 지속적인 강조, 이에 따른 기사 게재 노력의

주요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전체 수집된 기사들 가운데 국내 영자 매체의 긍정적 논조 비율이 상당수 나타났다. 이는 아리랑 TV, 코리아 헤럴드 등 국내 영자 매체들의 우호적인 국제 여론 형성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보여준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해 외신이 보도한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대처 프레임 소재 유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한국의 우월한 첨단 의료 기술 시스템, 현 정부의 투명한 소통 방식과 리더십, 선제적 대응과 정책 지원, 한국 국민들의 국민성, 기타 사회 공공 인프라 등으로 유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우월한 첨단 의료 시스템 프레임 소재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추적 진단 시스템,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한국만의 독창적 진단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현 정부의 투명한 소통 방식과 리더십 프레임 소재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 정부 리더십 하의 정책 추진, 민주주의적 접근 방식, 진단 키트 개발 등 선제적 대응 등에 강조를 두고 있었다. 한국 국민들의 국민성 프레임 소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 남을 위하는 자세, 빨리빨리 유전자 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기타 사회 인프라 측면에서는 간호 인력들의 헌신이나 공공 장소 방역 등에 대한 기사 소재도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주요 외신 보도의 프레임 소재 유형의 탐색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대처 방식을 조명하는 보도의 초점은 공공 외교를 위한 국가 신뢰 형성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세계적인 감염병 위험. 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유능한 대응 조치, 리더십을 통한 능력적 신뢰 요소, 그리고 정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보 소통 방식, 전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 자발적 참여 행위를 통한 윤리적 신뢰 요소가 고르게 결합된 국가 신뢰 프레임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영욱 (2008)은 통제 불능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 신뢰 형성을 위한 원칙으로서 첫째, 위험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조치와 대응, 둘째, 선택적 정보의 개방이 아닌 완전한 개방으로서 모든 상황을 공중들에게 알리는 것, 셋째, 정부 행위의 진정성, 넷째,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제시한 바 있다. 위험. 위기 상황에서 과학 기술의 문제가 커뮤니케이션과 시민 참여의 문제로 패러다임을 이동함으로써 신뢰의 형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외신들에 나타난 한국 코로나 19 대응·대처에 관한 보도 프레임 세부 소재들은 이러한 원칙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외신과 독자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외신 보도 프레임 소재 분석 결과 주의깊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외신들은 한국의 우월한 첨단 의료 시스템을 보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 등 혼합적 관점을 혼재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몇몇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의 민주주의 접근,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우호적으로 보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는 경우가 나타났다. 따라서 외신 보도의 특성과 관심사, 서구 개인주의 문화 기반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러한 관점의 보도에 대비한 프레임 소재 개발과 기획 기사 대응 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외신들의 보도에 있어 국가별 비교 앵글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아시아권 내에서 한국과 중국간 비교, 한국과 서구 미국간 비교 등 광범위한 국가간 비교 프레임 소재들이 점차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구 문화 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내에서도 차별화된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문화적 특성, 국민적 특성 등과 관련해 긍정적인 프레임 소재들이 다양하게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로서 우리주의 (We-ness), 하모니 (harmony) 등 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스토리와 기획기사 등의 발굴이 함께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의 코로나 19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스티지스 (1994)는 위기 단계에 따라 메시지 프레임이 달라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위기 발생 (Build up, Break out) 단계에서는 위기 대응 대처와 관련된 정보 제공형 (Instructing) 메시지가, 위기 감소 (Abatement) 단계에서는 사람들의 심리적 위로를 해주는 조정형 (Adjusting) 메시지와 조직의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내재화형 (Internalizing) 메시지가 효과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covid19 심리지원단 활동 등이 조정형 메시지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정보 제공형 프레임 소재의 보다 정교한 개발 및 전달과 더불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조정형 프레임 소재와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재화형 프레임 소재 발굴과 기획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7.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코로나 위기가 처음 발생한 초기 단계 시점에 국한되어 데이터 수집과 분석, 해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만큼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각도에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외신 보도 가운데 영미권 매체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타 국가들의 논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영미권 외에 보다 다양한 외신들까지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에

따른 논조 파악 등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영옥 (2008).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현대 사회의 위험, 위기, 갈등에 대한 해석과 대응>.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한주 (2007).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뉴스 보도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0권 3호, 465-487.
- 박은혜·김영옥 (2007). 언론 프레임링과 이미지 회복 전략이 공중의 위기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8호, 73-118.
- 송해룡·이윤경 (2013). 국내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의 위험 보도에 관한 비교 연구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28호, 97-144.
- 신종 코로나 감염도 두렵지만 주위 비난 더 무서워. <파이낸셜뉴스> 2020.2.7. URL: <https://www.fnnews.com/news/202002071025397069>
- 오경민·박홍식 (2002). 정부 신뢰 수준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1권 3호, 113-135.
- Baysha, O., & Hallahan, K. (2004). Media framing of the Ukrainian political crisis, 2000-2001. *Journalism Studies*, 5(2), 233-246.
- Bill G. (2015). The next outbreak? We are not ready. 4 April 2015,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6Af6b_wyiwI
- Christen C.T. (2004). Predicting willingness to negotiate: The effects of perceived power and trustworthiness in a model of strategic public relation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6(3), 243-267.
- Coombs, W.T. (1999). *On-going crisis communication: Planning, managing and responding*. Thousand Oaks, CA: Sage.
- Dutton, J.E. (1986). The processing of crisis and non-crisis strategic issues.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23(5), 501-517.
- Entman, R.M. (1993). Framing: Toward a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51-58.
-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University. 이윤희, 이현희 (역) (1991).

<포스트 모더니티>. 서울: 민영사.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eath, R. L. (2004). Telling a story: A narrative approach to communication during crisis. In. D.P. Millar & R.L. Heath. *Responding to Crisis* (pp.167-187). Routledge: Taylor and Francis Group. New York and London.
- Leiss, W., & Chociolko, C. (1994). *Risk and Responsibility*, Montreal &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Lewis, J.D., & Weigert, A. (1985). Trust as a social reality. *Social Forces*, 63(4), 967-985.
- Lundgren, R.E., & McMakin, A.H. (2004). *Risk communication: A handbook for communicating environmental, safety, and health risks* (3rd ed). Columbus, OH: Battelle Press.
- Iyengar, S. (1987). Television news and citizen's explanations of national affai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 815-831.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lovic, P. (1984). Perception and acceptability of risk from energy systems. In W.R. Freudenburg and E.A. Rosa (eds.), *Public Reactions to Nuclear Power: Are There Critical Masses?* (pp.115-135). Boulder, CO: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Westview Press.
- Reuter. Flatten the Curve. Retrieved from:
<https://graphics.reuters.com/health-cornonavirus/yxmvjookdpr/index.html>
- Rousseau, D.M., Sitkin, S.B., Burt, R.S., & Camerer, C.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393-404.
- Semetko, H.A., & Valkenburg, P.M. (2000).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2nd ed.). Longman. 김원용 역 (1997). <매스미디어 사회학>. 서울: 나남.
- Singer, E., & Endreny, P.M. (1993). *Reporting on Risk*.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송해룡 역 (2003). <위험보도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Sturges, D.L. (1994). Communicating through crisis: A strategy for organizational survival, *Management Communication Quarterly*, 7(3), 297-316.
- Yang, J., & Lee, S. (2020). Framing the MERS information crisis: An analysis on online news media's rumour coverage. *Journal of Contingencies and Crisis Management*. 28, 1-13.

Abstract

Exploratory Study on South Korea's Initial Response to Corona 19 in Foreign Press Framing: Risk, Crisis and National Trust

Yujin Lim

(Chief Researcher, KPR Digital Communication Lab)

Yewon Lee

(Researcher, KPR Digital Communication Lab)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news frames of foreign media related to Korea's quarantine response in the early period of the Corona 19 outbreak and attempted to understand its significance.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diplomacy, this study discussed the direction of communication in response to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in Korea. **Research method:** From January to April 2020, a total of 119 articles from 20 major foreign media were selected and analyzed, focusing on the response frames used by foreign media. **Research Results:** The types of foreign news media frames were found to be Korea's superior high-tech medical technology system, the current government's transparent communication and leadership, preemptive response and policy support, the Korean people's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other social and public infrastructure, etc. Further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Corona 19, Infectious disease crisis, Korean government quarantine response, Foreign press, Framing*

투고일: 2020. 12. 17

심사일: 2021. 3. 10

게재확정일: 2021. 3. 15